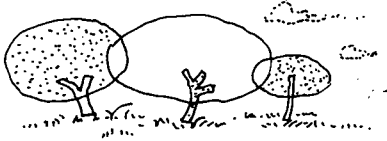




앞으로 4年, '88서울올림픽으로 가는길



朴 景 圭
(社) 環境教育會 委員長

1. 어떤 動機附與

얼마 前, 環境廳을 출입하는 某部의 Y氏를 만났다.

우리는 이런 저런 環境問題 全般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政府는 물론, 企業과 國民 모두가 스스로 環境保全의 當爲性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動機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흘렀다.

말하자면, 「버마」 사건이 더욱 투철한 反共意識을 불러 왔고, 「호르므즈 해협」 사태가 石油 한방울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듯이, 어떤 사건에 環境問題를 代入해, 環境保全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겠느냐? 고 Y氏가 물었다.

그렇려면, 큰 動機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London Smog 사건>이나 <Minamata 사건> 같은 것이 나타나서 (피해를 입고 나서야) 경각심을 갖게 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일테니 안되고...

그래서 나는 좀 엉뚱한, 그러나 우리나라의 環境保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매우 데리케이트한 생각을 이야기 했다.

—“우리나라의 環境保全 하나만을 생각(동기 부여라는 측면만 생각)한다면, 이번 열리는 L.A 올림픽이 環境問題로(때문에) 조금 잘 안되었으면 좋겠어요. L.A. 경우 大氣汚染이 심한 곳이

니까, 몇몇 나라가 스모그를 이유로 경기를 포기한다거나... 마라톤 경기는 아예 못하거나...”

엄청난 내 얘기에 Y氏는 기가 막힌지 말문을 열지 못하다가,

—“큰 일 날 애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북피들은 韓國의 環境問題가 어찌니, 저찌니. 하면서 '88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려 드는데...”

L.A.에서 環境問題가 시끄러워지면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빨리 環境을 保全해야지요. 서울의 大氣가 결코 L.A.의 大氣 보다 맑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展開해야 할 努力은 環境保全 뿐입니다.”

2. '88 서울 올림픽은 民族의 최대 國事

'88 서울 올림픽

開國 以來 최대의 國事が 아닐 수 없다. 온 人類의 代表(언어나 피부색,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순수한)가 한 날, 한 時에, 한 자리에 모여 힘과 技와 藝를 견주어 보는 이런 일이 5천년 우리의 歷史에 언제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때문에 '88年의 國事(올림픽)는 成功의 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國事を 통해 그동안 우리가 같고, 닦았던 民族의 슬기와 야량,

도의와 끈기, 그 우리만의 德을 만방에 告해야 되며, 찬란한 5천년 歷史가 이룩한 文化, 藝術의 至高한 빛을 이 기회에 온 世界에 보여 주어야 한다.

뿐만이랴, 6.25의 焦土에서 불과 30餘年 안밖에, 이렇듯 發展 시켜 놓은 經濟發展과 國防. 그리고 錦繡江山이라고 불려온 이 自然의 美어남을 자랑해야 한다.

바로 기회는 이때인 것이다. 이리, 저리 들고 다니며 보여줄 수도 없었던 우리의 열과 힘, 그리고 무한한 에지를 그날 人類를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두루 구경시키며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4年後로 다가온 것이다.

어찌 가슴 설레이지 않겠으며, 어찌 즐겁고 기쁘지 않을 것인가?

3. 트집의 기회 주지 말아야...

그래서, 지금 길을 넓히고, 다리를 놓고, 主 경기장은 東洋 最大로 하고,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서울 땅바닥 속엔 地下鐵이 거미줄 같이 깔리고, “體力은 國力”이니 「體育部」도 만들고... 온통 잔치 준비에 바쁘고, 흥겹다.

하늘이 도왔는가? 이번, L.A. 올림픽 그 손수한 人類의 祭典에 이데올로기를 끌어 들이려던 소련과 東歐圈 일부 나라가 불참하는 바람에, 우리는 대거 3백명에 가까운 선수를 보내어,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위해 힘과 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모두가 잘 되어 가는 일이고, 모두가 신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를 시기하는 무리도 생겨 이리쿵, 저러쿵 말들 하고, 북피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저지하려고, 온갖 중상, 모략에 공갈, 협박까지 하고 있다.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더니 사돈도 못되는 녀석이 배 아파 길길이 날 뛰니 어이 없다 못해,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북피의 중상, 모략 중에는 우리의 環境問題가 첫 손가락 정도로 꼽히는 모양이다. 하기가 經濟成長도 못한 주제라 環境汚染이란 말 듣도, 보도

못했을테니, 先進國家나 하는 環境汚染이라는 홍역, 그 일시적 진통을, 不治의 고질병으로 아는 모양인가? 그리고 지금 官民이 合心하여 自然保護 汎國民運動에 環境保全 對策을 세우는 것은 왜?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는가?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環境問題를 우선 해결해 놓는 것이다. 말 많은 사람에게 트집감을 주지 않으면, 된다는 그 간단한 이치대로 귀찮아도 世界에 쾌적한 環境을 만들어 보여주자...

이 글, 「時論」을 이쯤 쓰고 있는데, 協會 趙日成 部長이 찾아 왔다.

—“이번 號, 時論 다 됐나요?”

—“이제, 結論만 쓰면 끝나요./”

앞의 원고를 살피던 趙部長

—“88 서울 올림픽을 위해 環境을 保全하자는 얘기가요?”

—“가깝게는 그렇지만, 멀게는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環境을 분명히 保全해 두자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88 서울 올림픽을 위한 環境保全策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말하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올림픽 준비에 대한)

4. '88 서울 올림픽 위해, 이것만은...

① 現在 進行되고 있는 '88 서울 올림픽을 위한 모든 土木工事は 더 이상 擴大하지 말고 이대로 內實을 期하는 쪽으로 마무리졌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88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나, 게임을 참관하기 위해 오는 손님들은, 먼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지, 東洋 最大의 경기장이나, 高速道路나, 다리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 보다는, 일찌기 인도의 時聖 타고올이 율었던 東洋의 한 끝 아름다운 나라의 맑고, 밝고, 쾌적한 풍광을 직접 만나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장이 협소 하더라도, 도로가 좁아 불편 하더라도, 다리가 없어 우회하게 되더라도 정말 아름답고, 맑은 自然과 環境을 만끽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흡족해 할 것이다.

② 지금 부터, 大衆交通 수단을 제외한 모든 차량(自家用은 물론, 영업용과 官用車도 부분 통제 되어야 한다)은 江北 4大門 안과 江南 都心地의 進入을 억제, 금지해야 한다.

都市 大氣汚染의 主犯이 各種 차량이라고 할때,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 늘어만 가는 차량의 홍수를 지금 부터 근본적으로 막지 않으면, 4年後 L.A. 보다 더 심각한 光化學 Smog 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88 서울 올림픽에 임박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겠으나, 環境의 改善이나 保全是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對策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③ 현재, 잠실 경기장 주변에 移植되고 있는 老巨樹 식재는 중단되어야 한다. 물론, 충분한 관리와 기술로 老巨樹들이 옮겨지고 있으나, 土壤이나 氣候的인 조건 등으로 보아 결코 온전히 정착하기는 어렵고, 혹자는 그 중, 40%만 토착 되어도 成功이라고 자위하나, 나머지 60%의 실패를 용납할 수 없을 뿐더러, '88 서울 올림픽 때만 살아 있으면 된다는 式의 短見은 한마디로 非愛國的인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규정에, 경기장 주변에 꼭 老巨樹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限,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으니, 그곳 土壤과 氣候에 맞는 나무를 정성껏 가꾸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쓰리 나무에 개나리 정도라고 할 지언정, 단순히 올림픽만을 目的으로 하는 듯한 植樹는 중단되어야 한다.

④ 현재, 진행되고 있는「漢江綜合開發工事」의 경우, 비록 올림픽 前에 完工을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차원에서 進行되어야 한다.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과감히 고치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충분히 보충하고...) 혹여, '88 서울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工事に 졸속을 加할까 보아 두렵기 때문이다.

이왕, 시작된 漢江 開發(開發이란 이름이 못

마땅하지만)이 漢江을 더 빨리, 철저하게 죽이는 일이 되어서는 않된다.

⑤ 앞으로 4年만이라도 우리의 政策은 環境保全을 위한 쪽으로 적극 주도되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時限付라도 현재의「環境廳」을「環境保全部」로 승격 시키고, 專門 環境人에게 司法權을 주고, 環境保全 예산을 대폭(國防費 수준 정도로) 증액시켜 주기를 바란다.

現在 북괴가 내 거는 '88 서울 올림픽에 대한 방해 공작중 제일 큰 要素의 하나가 環境問題라고 할 때, 環境保全이 단순히 實驗室이나 어느 特定 기관이나 研究所, 團體만의 관심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88 서울 올림픽을 그 어느 國家에서도 이룩하지 못했던, 最大의 人類祭典으로 成功 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 보다도 맑고, 깨끗한 즉 쾌적한 環境의 造成이 時急한 問題라고 할 수 있다.

쾌적한 環境을 造成 했을 때, 모든 世界는 단순히 올림픽을 참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답고, 맑은 環境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애써 우리나라를 찾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스모그니, 교통체증이니 하여 말도 많았던 '84 L.A. 올림픽도 그 성대한 幕을 열었다. 그리고 앞으로 꼭 4年後 우리도 서울 올림픽의 幕을 열게된다. 그때 가서, 이번의 L.A. 올림픽 같이, L.A. 의 스모그 현상, 교통 체증 등으로 남너 마라톤 경기 일자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또 기록은 저조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의 우울하고 답답한 일로 당황할 수는 없다.

올림픽은 단순한 게임 以前에, 人類가 同一한 目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唯一한 기회로 人類的 次元에서 보면, 聖스럽기 조차한 일이다.

이 聖스러운 人類의 순수한 大祭典을 汚染과 近視眼의 과시로 망칠 수는 없다.

현명한 예지의 政策과 企業人의 양심, 그리고 國民의 團合된 意識을 기대한다.

앞으로 4年!

'88 서울 올림픽으로 가는 길은 처음도 環境保全, 끝도 環境保全에 있음을 밝혀둔다. *